탤런트 박지현 "재벌가 며느리? 모현민처럼 저는 못살아요"

'재벌집 막내아들' 최대수혜자 '과분'
특정인물 염두 NO…명품패션 참고

탤런트 박지현(28)은 JTBC 종방극 '재벌집 막내아들'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현성일보 사주 장녀 '모현민'(박지현)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원작 웹소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드라마에선 당돌하고 야망이 큰 인물로 그려졌다. 물론 여주인공인 검사 '서민영'(신현빈) 매력이 반감 돼 더욱 주목받은 경향도 있다. 박지현은 지난해 초 모현민과 서민영, 미라를 애널리스트 '레이첼'(티파니)을 두고 오디션을 봤다며 "간절해서 '뭐라도 시켜주면 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최대수혜자'라는 수식어는 과분하다. 캐스팅 라인업을 보고 훌륭한 선배들과 같이 연기하게 돼 영광이었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드라마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닌 선배들 덕분이다. 촬영장에서도 선배들 연기를 보면서 계속 감탄했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다. 극본이 재미있고 캐스팅이 화려해 시청률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내가 출연했지만, 진심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몰입한 것도 오랜만이다."

이 드라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 '윤현우'(송중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승계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현민은 단순히 악녀로만 그려지지 않았다. 야망이 크지만 발톱을 숨기곤 했다. 원작을 보지는 않았다며 "많은 패를 숨기고 있어서 표정 등 외적인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려고 했다. 강약을 조절해 단어와 문장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싱크로율이 높지 않다"며 "실제로는 털털하고 야망, 욕심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현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환경, 재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고, 드라마라서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다. 시청자들이 평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 이루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욕망과 열정을 여과없이 보여줘 대리만족하지 않았을까.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통쾌했다. 솔직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스스로도 대리만족했다."

초반에 현민은 순양그룹 총수 '진양철'(이성민)에게 총애를 받는 도준에게 호감을 보였다. 거절 당한 뒤 장손 '진성준'(김남희)와 결혼했다. 도준을 유혹할 때 치명적인 매력이 돋보였다. "감독님도 그 신을 중요시 했다. 현민 분량이 많지 않은데, 좀 더 극대화해 보여줄 수 있는 신이었다"며 "성준과 정략 결혼을 앞두고 도준에게 (사업을) 제안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짚었다. "송중기 선배도 많은 제안을 해줬고, 잘 이끌어줘서 좋은 신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현민을 포함해 다양한 캐릭터가 실제 재벌가를 연상케 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 "스타일링 할 때도 재벌가를 참고하지는 않았다. 시대극이라서 그 시절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 패션쇼를 많이 찾아 봤다. 유행은 돌고 돌지 않느냐. 지금 그 시절 옷을 입고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현민처럼 옷을 좋아한다며 "직접 빈티지숍에서 옷을 구입해 입기도 했다. 모자도 직구했다. 매 신 메이크업, 의상에 맞춰 손톱도 다르게 했다. 방송에선 잘 안 보였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신부 대기실 신을 꼽았다. "현민이 처음으로 성준의 이면을 알고, 문을 잡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연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려는 걸까?'라는 착각이 들 때 화면이 겹쳐지면서 성준 손이 올라갔다"며 "난 대사가 많지 않았는데, 남희 선배가 연기를 잘해서 자동으로 리액션이 나오더라. 진심으로 화가 많이 났고, 그때 감정이 가장 격정적이었다"고 털어놨다.

"난 재벌가에서 못 살 것 같다. 물론 다양한 재벌가 며느리가 있겠지만, 현민의 삶으로만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시집살이 하면서 현민의 색을 잃어가 굉장히 딱했다. 20대 패기, 열정이 결혼으로 인해 사그라지지 않았느냐. 다른 목적이 생기긴 했지만 당연해져 가는 현민의 삶이 안타까웠다. 난 하루하루 소소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 연기도 돈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평생 하고 싶다."

이성민(54)을 비롯해 조한철(49), 김신록(41) 등과 호흡하며 배운 점도 많다. 데뷔 전 조한철에게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 작품에서 만나 애틋했다. '너에게 가는 속도 493㎞'(2022)에 이어 두 번째다. "마지막 레슨 때 '우리 이제 현장에서 보자'고 했는데, 몇 년 뒤 이뤄져 감격스러웠다. 이번에 독대하는 신도 있어서 행복했다"며 "한철쌤이 익숙한데 '무슨 선생님이야. 우리 이제 동료야'라고 하더라. 대선배들이 많아서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했다. 선배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인기가 높아지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2019년 SBS TV 예능물 '런닝맨'에서 스무살 때 몸무게가 78㎏이었다고 밝혔는데, 과거 씨름선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씨름의 시옷자도 꺼내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짧게 수영을 했지만, 씨름 모래판도 밟아본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루머로 인해 특정 씨름 선수 사진이 거론돼 놀랐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연기하고 싶다'고 졸랐다. '서울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다"며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힘이 필요하니까. 많이 먹게 돼 급격하게 체중이 증량됐다"고 덧붙였다.

박지현은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연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를 하며 꿈을 키웠지만, 이후 연기 매력에 푹 빠졌다. 연기 시작 전엔 자존감이 높았지만, 데뷔 후 수많은 오디션에 탈락하며 좌절하기도 했다.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2017)로 데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2020) '유미의 세포들'(2021) 등에 출연했다. 영화 '곤지암'(2018) '앵커'(2022) 등에서도 활약했다. 내년 영화 '히든 페이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처음에 오디션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았다. '아직 많이 부족한가' '예쁘지 않나' 싶었다. 오디션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독님 생각 속 정확한 이미지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어느 순간 '이 캐릭터와 안 맞나 보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면서 편해졌다. 떨어진 작품이 공개됐을 때 다 찾아보는 편인데, 캐스팅된 배우들이 인정됐다. '언젠가 나한테도 적합한 캐릭터가 찾아오겠지. 그날을 위해 갈고 닦아야지' 싶었다. 30대에도 꾸준히 연기하고 싶다."

김호중, 3개월 전국투어 대장정 마무리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3개월간의 전국투어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호중은 지난 24일과 25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아리스트라' 대전 공연을 끝으로 전국투어의 막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9월 30일 서울 첫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일산, 대구, 부산, 대전까지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김호중은 대전 공연에서 "아리스(팬덤) 덕분에 행복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 '위대한 사랑' 등 클래식부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고향역' '파트너' '애인이 되어 줄게요' '고맙소' '빛이 나는 사람' 등의 가요를 열창했다.

2013년 싱글 앨범 '나의 사람아'로 데뷔한 김호중은 2020년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전부 꿈이었다" 허무 결말…'재벌집 막내아들' 26.9% 종방

송중기 주연 '재벌집 막내아들'이 시청률 30% 벽을 넘지 못했다.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인 '부부의 세계' 넘지 못해 아쉬움

26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종방한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16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26.9%를 찍었다. 15회(25.0%)보다 1.9%포인트 올랐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14회 24.9%로 염정아 주연 'SKY 캐슬'(2019·23.8%)을 뛰어넘은 상태였다.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인 '부부의 세계'(2020·28.4%)를 넘지 못해 아쉬움을 줬다.

이 드라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 '윤현우'(송중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승계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마지막회는 원작 웹소설과 다른 결말로 끝났다. 이날 방송에선 송중기가 도준에서 현우로 돌아온 모습이 그려졌다. 현우는 절벽에서 총을 맞고 떨어져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고, 도준의 회귀 인생은 모두 꿈으로 밝혀졌다. 용두사미 결말에 '허무하다'는 시청자 혹평이 쏟아졌다.

현우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비자금 회수를 위해 떠났다가 총상을 입었다며 배후로 '진성준'(김남희)을 지목했다. 20년 전 도준 사망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 '하인석'(박지훈)이 증언자로 나섰다. 도준 살해 공범으로 현우를 지목했지만,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증언은 무효화됐다.

현우는 도준 살해를 위한 미끼로 이용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서실장 '김주련'(허정도)과 녹화파일을 공개, '진영기'(윤제문)가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순양그룹 오너 일가는 국민 여론에 못 이겨 경영권을 포기했다. 현우는 "이젠 안다. 빙의도 시간 여행도 아니다. 그건 참회였다. 진도준에 대한 참회, 그리고 나 윤현우에 대한 참회"라고 했다.

뉴시스

송중기, 영국인과 1년째 열애…결혼·임신설

배우 송중기(37)가 새 사랑을 찾았다. 영국인과 교제를 인정했지만, 결혼·임신설에는 말을 아꼈다.

26일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에 따르면, 송중기는 영국인 A와 1년째 열애 중이다. 지난해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A는 연예계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교제 사실 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청했다.

교제 인정 후 A 임신설과 함께 결혼설도 퍼졌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중기가 곧 결혼 발표할 것"이라고 썼다. 다른 네티즌은 "며칠 전 아는 분 처남이 '송중기가 외국 여배우랑 임신해서 산부인과 온 거 봤다고 했다"며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인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중기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되풀이했다.

송중기는 7일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서 열린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A도 동행했으며, 송중기가 직접 스태프에게 연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귀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때 A는 손으로 배를 살짝 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7세 의붓딸 성추행 후폭풍…'결혼지옥' 결방

오은영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데 참담한 심정"

'결혼지옥'이 7세 의붓딸 성추행 후폭풍으로 휴방한다.

MBC는 26일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 차 2주간 결방한다"며 "시청자들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19일 방송에는 7세 딸 양육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등장했다. 부인은 전 남편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초혼인 남성과 재혼했다. 남편은 7세 의붓딸을 껴안은 채 엉구리와 가슴 등을 간지럽히고, 주사 놓기 놀이라며 엉덩이를 찔렀다.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딸은 "뇨 달라. 삼촌 싫어"라며 거부했다. 부인은 "장난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너무 괴롭게 들린다. 제지하려고 하면 '왜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느냐'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MBC 시청자 소통센터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제작진은 VOD 다시보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상태다. 익산경찰서는 아동 성추행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MBC는 22일 "부부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과 함께 아이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 내용이 뒷부분에 집중되고 상당 부분 편집 돼 오 박사와 MC들이 남편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준 것 역시 제작진 불찰이다. 앞으로 녹화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은영은 다음날 "방송분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 내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데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따끔한 지적·충고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다. 향후 내 의견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했다.